

한국 선교단체의 구조에서 본 SC 선교사에 대한 평가와 적용 방안

이 현 모

<선교학 · 부교수>
timlee@kbtus.ac.kr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반의 선교역사가였던 Kenneth S. Latourette은 19세기를 개신교 선교의 “위대한 진보의 시기”라고 표현하였다.¹⁾ 그러나 만약 Latourette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그의 위대한 선교 역사서(歷史書)를 집필하였다면 그는 아마도 이 명예로운 호칭을 19세기에 주지 않고 20세기에 주었을 것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세계선교는 유래가 없는 진보를 경험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서구 식민통치의 등에 업혀서 일지라도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서구 백인 중심의 개신교회 세력에서 구심점이 제2/3세계 국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선교사의 구성도 서구 백인 중심에서 제2/3세계 출신 선교사 중심으로 변화되어졌다.²⁾ 19세

1)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V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1), 1.

2) 1998년을 기준으로 비서구 출신 선교사의 비율이 서구 출신 선교사를 앞서게 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선교사 자원의 과반수 이상이 비서구에서 배출되어지게 되었다.

기말의 국가단위 선교 개념에서 민족단위의 선교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미전도종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지면서 선교사역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전략의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변화들을 일으켰다. 19세기 중반에 “토착교회 전략”의 일환으로 ‘삼자교회 원리’가 제시되어져서 비로소 선교전략이라고 할 만한 개념이 선교에 도입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새로운 전략적 개념들이 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에 출간된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 the World*라는 책에서 David Barrett는 세계 교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하였다. Barrett는 현재 전세계의 교회들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복’(duplication)과 ‘경쟁’(competition)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한 곳에 균등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이다.³⁾ 이 지적은 선교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 이후로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두 가지 흐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중복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계획과 단체간에 거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서 Thomas Wang이 주축이 된 AD 2000 Movement가 구성되어졌다. 이 운동은 세계의 주요 선교단체간에 중복과 경쟁을 피하도록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었다. 비록 이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종료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이 운동의 전략적 영향은 커다란 선교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 흐름은 중복과 경쟁이라는 장애물을 연구하다가 보니 실제 선교적 자원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닫혀진 나라들’(closed countries) 때문임을 발견하자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실제로 선교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닫혀진 나라들’ 혹은 ‘창의적

3) David B. Barrett and James W. Reapsome,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d the World: The Rise of a Global Evangelization Movement* (Birmingham: New Hope, 1988), 44.

접근 지역'인 것이다. 이 문제가 선교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마치 19세기에 Stanley Smith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수없이 배고픈 자들이 있는데 빵을 나누는 자 인근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먹기에 넘치도록 많은 빵을 계속 받고 있고 나머지 배고픈 다수는 계속 기근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있다.⁴⁾ 즉 기독교 선교자원이 World C와 같은 곳에는 넘쳐나고 정작 필요한 World A와 같은 곳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의외로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타종교권이라는 종교의 장벽뿐 아니라 문화적 이질감, 언어의 불통, 이질적 정치 제도의 차이, 여행의 불편, 합법적 입국의 어려움 등 예기치 못한 수많은 장벽이 생각처럼 쉽게 여유 있는 선교자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전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World C에서는 전세계 교회 재정의 99.9%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World A에서는 0.01%밖에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⁵⁾ 1990년대에 주요 선교단체들이 이러한 선교사 분포의 불균형을 수정하고자 선교사 재배치를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선교사 재배치는 주요 선교사 대회마다 중심 과제로 남아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선교자원의 연결뿐 아니라 미전도종족 지역 내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적 필요 가운데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새로운 선교전략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Strategy Coordinator라는 개념의 선교사이다. 본고(本稿)는 한국 선교단체의 구조 내에서 이 Strategy Coordinator 선교사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시도하고 우리의 구조에 적절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이 개념은 아직도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므로 제한된 문헌만을 연구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본고 내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한 훈련을 통하여 배출된 한국인 Strategy Coordinator들의 현장에서의 견해를 추가하여 논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4) Todd M. Johnson, *Countdown to 1990* (Birmingham: New Hope, 1988), 28.

5) Barrett, 21.

SC 선교사의 출현과 발전

Strategy Coordinator 선교사(이하 SC 선교사)⁶⁾라는 새로운 개념은 1986년 처음으로 미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의 선교 연구팀에 의하여 제시되어진 ‘비거주 선교사’(NRM-Nonresidential Missionary)에서 유래하였다.⁷⁾ 이 개념과 용어는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의 저자인 David B. Barrett에 의해서 그의 저술에 소개되어지게 되었고 David Garrison에 의해서 「비거주 선교사」라는 책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 전략으로 인용되어지게 되었다.

비거주 선교사 개념이 비록 미남침례교 해외선교부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지만 Barrett는 이것이 결코 이들의 독창적 창작품이 아니라 이 시대의 소산물임을 지적하였다.⁸⁾ 이 지적은 적절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창의적 접근지역’ 내의 미전도인들에게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하나님의 자원을 연결시키기 위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발명품인 것이다. Barrett는 비거주 선교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거주 선교사는)장기 전임 선교사로서 합법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되, 자신의 주된 사역대상지인 미전도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나라의 외부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복음전도나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 지역 기독교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외부의 관심이 있는 모든 대상들을 네트워킹 하여서 사역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사역자이다.⁹⁾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직접 현지에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현지의 영적

6) Strategy Coordinator 선교사라는 용어를 한국에서는 “전략 조정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가 선교지에서 때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른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아직 적절한 호칭이 제안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영어명을 그대로 사용하되 약칭으로 SC 선교사라고 사용하겠다.

7) David Garrison, 「비거주 선교사」, 김창영, 조은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40.

8) Ibid., 41.

9) Barrett, 31.

필요를 조사하여서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선교자원이 있다면 이 자원이 활용되어지도록 돕고 대부분의 경우 현지의 자원이 부족할 경우는 이 지역 혹은 국가 이외의 기독교 선교자원이 풍부한 국가나 지역으로 가서 이 선교자원들이 부족한 현지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교량의 역할을 하는 전략적 동원 사역자라고 하겠다.

그러나 비거주 선교사라는 개념은 실제적 활용 경험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이전과는 달리 점차 초점이 ‘비거주’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비거주 선교사’라는 개념이 전통적 선교사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인상을 주게 되어지자 호칭을 SC 선교사로 바꾸게 되었다. Curtis Sergeant는 이 변화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선교사가 선교지역에 어떻게 접근하는가?”라는 관심의 초점에서 “어떻게 선교 대상자가 복음에 접근하게 하는가?”로 관심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비거주 선교사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 선교사 혹은 선교자원이 어떻게 접근하게 하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곧 이들은 이런 접근의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게 수많은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작 문제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대상자들이 복음에 접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둘째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촉매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비거주 선교사는 주로 선교자원과 필요한 미전도종족 사이에서 교량 혹은 도관(conduits)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이제는 현지의 복음화를 위한 촉매(catalysts)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실제 현지에서 사역하면서 의외로 많은 지역이 준비된 추수지역임을 발견하면서 생긴 변화이다. 셋째는 단순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개혁 배가운동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거주 선교사는 미전도종족 가운데 자생적 복음전도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넘어서서 이들 종족 전체가 충분히 복음을 접하게 하고 스스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역의 종료를 염두에 두게 되었다. 비거주 선교사는 자신들의 목표가 너무 거대해서 대상 사역지가 그리스도에게 대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SC 선교사는 수년 내에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다른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실제 참여한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일이 너무 빨리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다.¹⁰⁾

오늘날 SC 선교사는 이전 비거주 선교사의 정의에 포함되어진 선교자원의 재분배자 역할과 함께 더 나아가서 특정 미전도종족이나 지역에서 교회개척 배가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성장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책임을 진 선교사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이를 위하여 SC 선교사는 전통적 선교사들과는 구분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은 거주 지역의 제한을 가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SC 선교사들의 대상 사역지는 ‘창의적 접근지역’으로서 선교사의 거주가 불법이거나 심한 감시로 인하여 사역에 큰 제약을 받는 지역들이다. 그러므로 SC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지역에 거주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선교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전통적 개념의 선교지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선교자원의 동원과 네트워킹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전략적인 장소를 거주지로 삼는다.

둘째, SC 선교사들은 파송 교단 혹은 파송 단체에 제한 받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 모든 교단, 모든 단체와 상호 협력 사역을 원칙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 선교사들은 자신의 파송 교단이나 단체의 범주 안에서 활동을 하고 타교단 혹은 타단체 선교사와는 동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Barrett가 지적한 대로 어리석은 ‘경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만 선교자원의 빈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 혹은 단체의 차이에 따라서 선교자원의 빈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SC 선교사는 풍부한 선교자원을 부족한 지역에 연

10) Curtis Sergeant, “NRM to SC: What’s Changed,” *To Hasten the Day: Catalyzing Church-Planting Movements with the SC Approach* [CD-ROM], July 1999.

11) Curtis Sergeant, “What is a Strategy Coordinator?” *To Hasten the Day: Catalyzing Church-Planting Movements with the SC Approach* [CD-ROM], July 1999.

결시키는 것이 사명이므로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 뿐 아니라 교파별, 단체별 한계도 뛰어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셋째로, SC 선교사는 하나의 미전도부족 혹은 하나의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화의 책임을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Garrison은 초기 미전도부족을 향하였던 선교사들이 실패한 큰 원인이 그들의 선교대상을 한 부족으로 제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²⁾ 여러 미전도부족을 모두 복음화하겠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방향을 빗나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점이 여럿이 되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사역에서 저 사역으로 쉽게 슬쩍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바쁘지만 그들의 노력의 열매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SC 선교사들이 한 부족을 대상으로 삼으면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 부족에만 집중하기에도 언어나 문화적 지역연구, 플랫폼¹³⁾의 형성 등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는데 여러 부족을 목표로 할 경우 전문성은 더욱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SC 선교사는 한 부족 혹은 그 부족이 너무 클 경우 제한된 한 지역을 자신의 사역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물론 한 지역 혹은 종족의 사역에서 목표가 성취되어지면 다른 종족이나 지역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SC 선교사가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의 일을 하게 된다.¹⁴⁾ 첫 번째 일은 연구조사하는 일이다. 이 연구조사는 자신의 대상 사역지인 특정 미전도종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장차 선교자원을 지원 받을 기독교권에 대한 연구조사를 모두 의미한다. 이 양자 모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질 때에만 SC 선교사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둘째로는 이 연구조사에 근거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 전략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고려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특히 기도 동

12) Garrison, 30.

13) 미개척지역에서 최초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발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14) Garrison, 31-37.

원, 성경 번역, 방송 선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사의 투입까지의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 세우는 접근을 권장한다. 세 번째는 실행 단계이다. 실제 자신이 계획한 전략에 따라서 선교자원들을 자신의 선교 대상지역에 동원시키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교회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SC 선교사는 빈번하게 자신의 사역 대상지와 선교자원이 있는 지역을 드나들면서 사역하게 된다. 최근의 일부 SC 선교사는 오히려 비거주의 특성을 버리고 더 많은 시간을 자신의 사역 대상지에 체류하면서 교회개척 운동이 발생하도록 참여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이다. SC 선교사는 복음화 사역을 측정하는 일련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대상 부족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평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최근의 경향은 교회개척 배가운동의 증진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의 SC 선교사 활용에 대한 평가

현재 국제적으로 SC 선교사를 적극적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표적인 곳이 미남침례교 해외선교부이고 이외에 YWAM(Youth With A Mission) 및 여러 초교파 단체들이 있다. 비거주 선교사 개념이 처음 소개되어지던 초기에는 서구에서조차 이런 개념의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극히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부 선교사들은 비거주 선교사의 약자인 NRM이 Not Real Missionary(가짜 선교사)의 약자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 새로운 선교사 개념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SC 선교사의 도움 없이 미전도 지역에 선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미남침례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 침례교 선교사들에게 비거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어졌고 1994년 「비거주 선교사」라는 책이 번역되어져 나오게 되면서부터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다. 초기 일부 선교사들이 영국과 싸이프러스 등에서 이루어진 SC 선교사 훈련에 참여하였고 마침내 1999년 세계선교훈련원(WMTC)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훈련이 시작되었다.¹⁵⁾ 이 훈련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선교사들 이외에도 미남침례교 소속 선교사들과 한국 내 장로교회와 초교파 단체 소속의 선교사들이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WMTC를 통해서 총 37명의 한국인이 SC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고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40명 이상의 SC 선교사 훈련 수료생들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엄격한 SC 선교사 정의에 따라서 평가해 볼 때 SC 선교사로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며 사역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하겠다. 대부분 SC 선교사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의 평가는 SC 선교사가 미전도종족 지역 사역에서 필요한 적절한 전략적 개념임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선교사에서 전임 SC 선교사로 사역을 변환하라는 요구에는 상당히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¹⁶⁾

이와 같은 소극적 반응이 서구에서 비거주 선교사 개념이 소개되어지던 초기와 같이 이해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선교단체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유래되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 이에 다음 부분에서 SC 선교사 전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서 소극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아직 한국에서는 SC 선교사라는 개념이 낯설고 문헌화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이 전략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발표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불가피하게 이 부분의 분석과 평가는 문헌 자료를 통한 연구보다는 필자의 경험과 관찰, 그리고 SC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선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¹⁷⁾

15) 첫 훈련은 강의 전체를 미남침례교 해외선교부의 SC 선교사 훈련 책임자인 Smith 박사 부부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한국인 강사들이 협력하여서 진행하게 되었다.

16) 제1기 SC 선교사 훈련에서 한국인이 18명 수료했지만 마지막 평가회에서 전적으로 SC 선교사역에 헌신하겠다는 선교사는 2명뿐이었다.

17) SC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선교사들 중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선교사들에게 이때

SC 선교사 개념 이해의 부족에 대한 분석

먼저는 SC 선교사 개념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 면에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에서의 이해 부족이다. 초기 서구에서도 비거주 선교사를 정식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었던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 내에서도 있다. 적지 않은 국내의 선교지도자들이 아직 SC 선교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사는 반드시 자신이 사역하는 사역지에 체류하고 있어야지 이 선교지를 빈번히 벗어나는 것은 ‘사역지 이탈’로 보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일부 전통적 선교사들이 너무 자주 사역지를 벗어나 본국이나 미국을 방문하여서 집회를 하거나 모금 활동을 하는 바람에 현지 사역의 맥이 끊어지고 여러 부작용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체류 선교사’의 경우 이런 행동은 지적 받아 마땅한 문제이다. 그러나 SC 선교사는 전통적 선교사와 전혀 다른 장르의 선교사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선교단체 지도자들 중에는 SC 선교사를 전임 선교사로 보기보다는 단지 ‘지역 연구자’ 혹은 ‘입국 비자를 받지 못해서 주변에 체류하는 선교사,’ ‘어느 정도 전문인 선교사나 자비량 선교사에 가까운 선교사’ 등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서구의 경우에도 초기에 나타난 반응들이었다.¹⁸⁾ 현재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정탐 연구자를 훈련시키고 있고, 한국 미전도종족 입양운동 본부(UPMA)에서 싸이렌(SiRen)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SC 선교사를 이런 부류의 선교사로 생각하기도 한다. 혹은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선교행정가, 심지어는 선교 브로커라고 생각하기도 하면 정상적인 사역에 도달하지 못한 보조적 선교사라고 간주하는 경

일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이중 8명으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질문 자체가 통계적 자료를 얻고자 하는 유형의 질문이 아니었고 또한 자료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계적 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18) Garrison, 37-39.

향이 있다. 그러므로 전임 선교사가 전적으로 SC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SC 훈련을 실제 SC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지 선교사의 연장교육 차원에서 선교 전략 강의의 한 부분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선교사들 간에도 SC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지어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 간에도 SC 선교사 개념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이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실제 SC 선교사 개념은 비거주 선교사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오늘날의 SC 선교사로까지 발전하였다. Sergeant가 지적한 것처럼 이전 비거주 선교사 개념과 SC 선교사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개념은 폭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자원의 재분배 역할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어느 단계의 특정한 강조점에만 치중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기 비거주 선교사의 개념에서 강조점을 ‘정규 선교사가 입국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과 ‘비거주’라는 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일하는 지역은 정규 선교사의 입국이 가능하므로 SC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 자신의 지역에는 선교사들의 공식적 출입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체류가 가능하므로 역시 SC 사역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비거주 선교사나 SC 선교사의 강조점은 선교자원의 풍부함과 부족함의 차이에 있다. 이 차이를 연결해 주는 재분배자의 역할인 것이다. 선교사의 체류가 가능할지라도 현지의 선교자원이 풍부하지 못할 경우 풍부한 곳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물론 일부 동남아 국가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선교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다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런 지역은 SC 선교사를 굳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 내에도 선교자원의 부족으로 선교사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경우는 선교사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도 SC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다.

또 다른 오해는 최근 SC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훈련과정에서 주로

교회개혁 배가운동에 큰 도전을 받고 나서 SC 선교사를 지나치게 교회개혁 배가운동에만 연관시키는 경우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지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있고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다시 교회개혁에 동원하고 있으므로 자신은 SC 사역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SC 사역에서 전적으로 벗어나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SC 선교사로서 충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현지에 충분한 선교자원이 있을 경우 SC 선교사보다는 전통적인 선교사나 현지인 목회자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SC 선교사는 역시 자신의 사역지역 밖에서 선교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특징이어야 한다.

한국 선교단체 구조 내에서의 SC 선교사 전략의 취약점 분석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과 같이 SC 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SC 선교사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조차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구조적 문제란 단순히 파송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 문제뿐만 아니라 SC 선교사 개념이 등장한 서구 교회와는 다른 문화적, 성격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 서구 출신 선교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한국 선교사들의 기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타교단의 상황을 깊이 분석하고 언급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어서 주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타교단의 경우 차이는 있겠지만 유사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첫째 요인은 파송 선교단체의 현지 사역 통제 능력의 차이이다. SC 선교사 개념이 가장 활발한 미남침례교회 IMB의 경우 선교사 재정 모금 정책이 한국 단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IMB 소속 선교사들은 개인적 모금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교단 차원의 협동선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월급, 생

활비, 사역 경비 일체가 전액 지급되어진다. 이와 같이 재정을 교단 선교부에서 책임을 지므로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 본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개인 사역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즉시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SC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면 그는 기존 전통적 사역을 즉시 정리하고 바로 SC 사역에 전임으로 임하게 된다. SC 선교사는 전통적 선교사에 비해서 사역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진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 주택과 차량을 얻어야 한다. 끊임 없이 외국 여행을 하여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할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여야 한다. 이런 경비 일체가 바로 본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므로 SC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경비 문제 뿐 아니라 지역을 이동함에 따라서 생기는 자녀 교육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특히 본국의 모교회나 후원교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면에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교부가 선교 경비를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한국침례교 해외 선교부의 경우 교단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고 선교사 자신이 전액을 지역 교회로부터 모금해서 선교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선교 본부에서의 선교사 사역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부의 결정과 지시대로 즉각 선교사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선교사 자신의 의식구조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역은 ‘자신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선교부의 공동체적 사역’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자신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 온 사역에서 쉽게 손을 뗄 수가 없다. 또한 모교회나 후원교회가 자신을 처음 받아 줄 때와 전혀 다른 사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이들로부터 허락 내지는 목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은 교회라면 이런 새로운 전략에 동의하겠지만 상당수의 교회들은 SC 사역을 이해하고 후원해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기존의 사역에서 손을 떼고 사역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수반되는 기존 사역의 처리 문제, 거주지 이동, 자녀 문제, SC 선교사로서의 적지 않은 경비의 소요 등에 대해서 선교 본부 측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단을 하기 어려우므로 SC 사역이

필요하다는 동의는 해도 자신이 이 일에 전적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기는 꺼리게 된다.

둘째는 선교 본부 자체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SC 사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IMB의 경우 초기에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CSI (Cooperative Service International)이라는 독립된 조직을 본부 조직 산하에 두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의 전통적 선교사들과는 구분된 조직으로, 구분된 사역을 수행하였었다. 비거주 선교사 사역이 제안되었을 때 CSI 소속 선교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역을 수용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비거주 선교사는 독특한 전문성을 가진 전략적 선교사의 한 부류로 인정이 되어졌고 사역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비거주 선교사가 SC 선교사로 발전하게 되고 CSI가 해체되어짐에 따라서 SC 사역은 기존 사역의 한 부류로 수용되어졌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SC 선교사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단체의 성격과 구조가 변화되어졌고 기존 전통적 선교사들과 어느 정도 분리되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도 정립되어졌다.

한국의 경우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였다. 아무런 조직상의 변화 없이 SC 선교사 개념을 수용하고 기존 선교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스스로 SC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들이 실제 SC 선교사로 사역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이들의 사역을 지원해 주거나 관리해 줄 수 없고 때로는 기존 전통적 선교사들과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를 이를 가능성이 생긴다. SC 선교사가 생기면 이들을 기존 구조와는 분리되고 독립된 구조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C 훈련을 수료한 선교사들을 실제 SC 사역에 들어가도록 관리하지 못하므로 SC 사역 참여자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로, 한국적 의식 구조에서는 SC 선교사를 위계구조에서의 한 직분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SC 선교사를 은연중 행정 책임자로 간주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한국의 의식 구조는 행정 책임자는 항상 높은 직급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들은 협력관계가 아니라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SC 선교사를 기능상의 전문적으로 보기보다는 조직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물론 초기에 SC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선교지에서 선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서 대부분의 SC 훈련 수료자들이 현지에서 선임순으로 이루어진 것도 일부 요인이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SC 선교사는 현지에서 상당한 기간 사역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고 SC 선교사는 조직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자동 인정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물론 선교지에 처음 가는 초임 선교사가 바로 SC 선교사로 사역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교지에서의 사역 기간에 기준하기 보다는 은사에 따라서 SC 선교사를 선발하고 위임하여야 할 것이다.

때로 한국어로 SC 선교사를 ‘전략조정 선교사’ 혹은 ‘전략 조정자’라는 용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 용어가 이런 위계 구조적 의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조정자’(調整者)는 ‘조종자’(操縱者)와 쉽게 혼동하여 상급자 혹은 ‘자기 뜻대로 남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원래 ‘조정’(調整)이란 의미는 “고르지 못한 것이나 과부족이 있는 것 따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정상 상태가 되게 함”이라는 의미로서¹⁹⁾ 실제로는 SC 개념에 적절한 용어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를 수용할 때 오해를 하는 것이다. 특히 전략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고급스러운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전략 조정자라는 말이 주는 잘못된 이미지가 보스(boss)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쉽고 오해의 여지가 적은 용어가 제안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선교자원 중개 선교사”라든지 “전략 제안 선교사” 등을 고려해 보는데 이들 용어 역시 한국 내 사용에 오해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용어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넷째로,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관(使役觀)도 SC 사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선교 역사가 짧은 한국 선교는 다양한 접근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교회 개척을 선호하는 양상이 있다. 이것은 다소 조급하고 직선적인 한국인의 특성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19) “조정,” 『동아 새 국어 사전』.

다른 문화권의 선교사들과 비교할 때 직접적인 교회개척 중심의 사역은 한국 선교사의 강점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 강점을 퇴색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불필요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심하여야 한다. 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포괄적 전략이 SC 선교사의 특징 중 하나인데 어떤 선교사도 자신이 혼자서 포괄적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 기도의 지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번역, 성경 배포, 방송 선교, 기독교 문서 사역, 지도자 훈련, 캠퍼스 사역, 고아원과 같은 사회 복지 사역, 재난 구호, 기독교권에 해외체류 중인 대상 종족인에 대한 전도 사역, 교회개척, 목회자 양성 등 실제 이런 모든 사역이 균형있게 공급되어질 때 현지의 복음화가 안정적으로 성취되게 된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은 자신의 한정된 사역에만 몰두하고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관심을 절제시킨다. 이런 상황 가운데는 SC 선교사의 사역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통적 사역을 평가 절하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대상 미전도종족 혹은 지역의 전체적 복음화로 크게 잡는다면 SC 사역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가 SC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전통적 선교사역을 하면서도 SC 선교사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SC 사역이 활성화되기에는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성숙과 선교사들의 능력이 더 발전하여야 한다. 한국이 기독교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다. 필요한 선교지와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가 짧으면서 동원 가능한 자원이 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국의 선교자원은 서구 기독교 국가와 비교할 때 그렇게 풍성한 형편은 아니다. 특히 선교사 후보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재정적 후원, 해외에서 봉사할 수 있는 평신도 자원, 자원 봉사자 자원, 전문 인력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해외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회의 숫자는 의외로 제한적이어서 SC 선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특정한 몇몇 교회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몇몇 교회와 기관들은 이미 여러 미남침례교 SC 선교사들의 다양한 협력 요구에

힘들어 하고 있다.²⁰⁾ 이는 폭넓은 선교자원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인되는 부작용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약속은 쉽게 하지만 실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면에서 부족하다. 기도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쉽게 여러 종족의 자료를 받지만 오랜 세월 동안 책임 있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물론 일부 교회의 경우 기도 사역도 너무 여러 명의 SC 선교사들로부터 중복되게 협력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특성상 기도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승낙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이를 정리해서 한 미전도종족이나 지역에 책임 있게 기도로 사역하게 되지 않고 피상적인 동참에 그치게 된다.

SC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선발과정에서 철저하게 SC 선교사로서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SC 선교사로는 사교적 성격의 사업가형 스타일이 적합하다. 그리고 여행을 즐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익숙하여야 한다. 창의력은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며 오히려 전통적 방법에 매달리는 보수적 성격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역이다.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현실만 보지 않고 비전을 중시여기는 사람이 좋다.²¹⁾ 그러나 현재까지는 SC 선교사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보다는 선교지 경륜이 있는 선임 선교사 모두에게 훈련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중에는 스스로 이런 은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SC 선교사로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SC 선교사가 한국에서만 선교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쉽게 한계를 가지게 되고 성격상 특정한 사역은 국제적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만한 국제적 활동 경험이나 영어의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할 만한 능력을 가진 선교사들을 배출하여야 SC 사역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 SC 선교사 전략이 활발하게 개진되지 못하게 하는

20) 이런 갈등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한국침례교회에서는 2000년 말부터 선교동원협의 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통일된 통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1) Curtis Sergeant, "What is a Strategy Coordinator?."

구조적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 선교단체 구조 내에서 SC 선교사의 적용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한국적 SC 선교사의 적용 방안

미남침례교 IMB에서 발전된 SC 선교사 개념은 훌륭한 것이지만 한국적 구조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일부를 과감히 수정해 볼 필요를 가진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SC 선교사는 현지를 완전히 떠나서 중매인 혹은 자원의 재분배자 역할만을 하는 것이 정서적인 면이나, 한국 내 교회들의 인식, 재정적 부담, 빈번한 여행의 필요 등에서 현재 시점에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점차 발전해 가는 SC 선교사 개념에서도 *Sergeant*가 언급하듯이 선교사의 접근 문제는 더 이상 SC 선교사의 핵심 개념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²²⁾

이를 위하여 첫째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현지에 있는 SC 선교사와 한국 내에서 이들의 파트너로 자원의 발굴과 연결을 돕는 SC 조력자를 구분해서 이 둘이 함께 팀으로 일하는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러면 SC 선교사가 빈번하게 현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선교자원을 필요한 곳에 동원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SC 조력자는 반드시 전임일 필요가 없다. 평신도 혹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다. 즉 SC 선교사는 현지에 체류하면서 복음의 효과적 접근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여 CPM 등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지에 필요한 포괄적 전략(*master plan*)을 세우고 이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조력자와 깊이 있게 의논하도록 한다. 동원된 선교자원이 현지에 장기든 단기든 도착하면 SC 선교사가 이 자원을 책임을 지고 활용하도록 한다. 한국 내의 파트너인 SC 조력자는 포괄적 전략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필요한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을 동원시키는 사역을 감당한다. SC 선교사가 개발한 정보와 자료를 한국 내 교회와 단체에 전달하고 필요한 자원이 선교지에 동원되어지도록 하는 일

22) Curtis Sergeant, "NRM to SC: What's Changed."

을 담당한다. 실제 해외에 주로 체류하는 선교사들은 한국 내 선교자원들을 개발하고 이들과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 오히려 한국 내 체류하는 조력자가 이런 일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는 조력자도 공식적으로 SC 사역자로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SC 선교사와 조력자는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고 필요시는 상호 방문을 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SC 선교사와 조력자 양자가 모두 정규 SC 선교사 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SC 선교사와 조력자는 1:1로 형성되면 이상적이겠지만 필요시는 몇 명의 현지 SC 선교사에 한 명의 국내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의 SC 선교사에 여러 명의 한국 내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파트너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임명이 되고 사역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혹 가능하다면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므로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런 SC 조력자를 개발하고 포괄적 전략에 따라서 한국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현지의 국가에서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SC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전세계에서 동원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접근에 취약점도 있을 것이다. SC 선교사는 단순한 자원의 재분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촉매 역할(catalyst)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촉매란 화학 과정에서 자신이 반응의 재료는 아니지만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동원 사역을 행할 때 좀더 효과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 체류하는 조력자가 효과적인 촉매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촉매 역할은 선교자원이 있는 곳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현지에서도 촉매 역할이 필요하다. 동시에 최근에는 멀티미디어가 활발하게 개발되어서 SC 선교사가 이를 잘 활용만 한다면 원하는 도전을 주는데 어는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의 목표를 재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개 약진형의 사역은 더 이상 현대선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네트워킹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이다. 아직 한국 선교사들은 이면에 취약한데 선교 본부와 선교사 자신이 이러한 목표 설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선교사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주님이 지휘하시는, 작게는 자신의 소속 선교 공동체가 지휘하는 커다란 작업의 한 부분을 감당할 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열매를 내놓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 내 선교단체들이 SC 사역에 대한 이해를 좀더 깊이 하여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SC 선교사 선발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선교지 경험이 필요하지만 연륜에 따라서 훈련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C 선교사 훈련을 국내에서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지 선교사를 한국으로 불러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훈련에 몰두하지 않고 건성으로 훈련을 받고 선교비 모금 활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훈련을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훈련은 가능하다면 SC 선교사와 해당 조력자가 함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필요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 부수적인 일들로서 중요한 SC 선교사 개념의 한국화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면 시행착오를 통해 시정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본고에서 일일이 다루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 선교 상황에 맞는 SC 선교사의 모델이 나와서 실제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다.

맺는 말

선교지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닫히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복음의 성취라는 교회의 목표는 결코 변할 수 없

다. 필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법의 발전일 뿐이다. SC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상황에 필요한 주요한 전략적 개념의 하나로 부상(浮上)되어졌다. 선교의 초기부터 미전도종족 대상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도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서 최대한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적 선교단체의 구조 안에서 SC 선교사의 활용에 어려움을 분석해보고 제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국적 SC 선교사라는 용어가 실제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전략은 결코 책상에서의 연구로 고안되어질 수 없고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만 전략적 발전에 본교의 제안이 긍정적 도움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Barrett, David B. and James W. Reapsome. *Seven Hundred Plans to Evangelized the World: The Rise of a Global Evangelization Movement*. Birmingham: New Hope, 1988.
- Johnson, Todd M. *Countdown to 1990*. Birmingham: New Hope, 1988.
- Garrison, David. 『비거주 선교사』. 김창영, 조은화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V.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1.
- Sergeant, Curtis. “NRM to SC: What’s Changed.” *To Hasten the Day: Catalyzing Church-Planting Movements with the SC Approach*. [CD-ROM], July 1999.
- _____. “What is a Strategy Coordinator?.” *To Hasten the Day: Catalyzing Church-Planting Movements with the SC Approach*. [CD-ROM], July 1999.